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개요

출장목적	모건스탠리 Annual Asia Pacific Summit 참석					
장소	싱가포르(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투자전략팀	3급	이규상	자산배분	1,548,047원	공단
	위탁운용팀	4급	박종철	해외투자	1,548,047원	공단
	계				3,096,094원	공단
동행기관명	-					

\* 출장경비는 환율적용에 따라 최종정산시 변경될 수 있음.

## 2. 출장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출장자	세미나 내용	비고
10.16(화)	서울	싱가포르	이규상 박종철	-	KE643
10.17(수)	-	-		Macro Economics 전망 점검	
10.18(목)	-	-		sector별 시장 전망 점검	
10.19(금)	서울	싱가포르	이규상 박종철	sector별 시장 전망 점검	KE644

※ 출발시간이 22:35인 관계로 실제 한국 도착은 11월 10일(토) 05:45 이후임

## 3. 업무수행내용, 출장성과 및 시사점

(별첨 출장보고서 참조)

[별첨]

#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Summit 출장 보고서

## 1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Summit

### □ 개요

-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주최하는 행사

### □ 특징

- '02년부터 시작하여 11번째 되는 행사로 아시아·태평양 기업 및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모건스탠리의 거시경제환경 및 투자전망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는 행사

### □ 일시 및 장소

구 분	주요 내용
명 칭	11th Annual Asia Pacific Summit
일 시	2012.11.6 (화) ~ 11.9 (금)
장 소	싱가포르 Mandarin Oriental Hotel

### □ 주요 참가자

#### ○ 주요 참가자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기업, 기관투자가 등
- ※ '12.11월 싱가포르 summit에는 270개 기업, 약 1천8백여명 참석

#### ○ 주요 Speaker

- 필리핀 재무장관(Mr. Cesar V.Purisima), 미국 주지사(Tim Pawlenty), 미국 예일대 교수(Mr.Stephen S. Roach) 등 다양한 Speaker 구성

## □ 컨퍼런스 일정

### ○ 주제

-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 미국 대선이후의 Fiscal Cliff 진행 전망
- 유럽은행의 리스크 전망 등

### ○ Key Speaker

구 분	Key Speaker
정 부	Mr. Cesar V.Purisima(필리핀 재무장관)
교 수	Mr.Stephen S. Roach(미국 예일대 교수)
정치인	Tim Pawlenty(미국 전 미네소타주지사)

## 2 주요 Agenda

### □ 세계 거시경제 전망 : 애매한 상황에 갇힌 세계경제

- 세계 경제상황은 성장과 불황을 구분하는 경계국면에 빠져 있음
  - 개도국의 성장모델이 깨졌고
  - G3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게 남아있기 때문
- 대규모 통화공급은 경기후퇴 위험을 제한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 이에 따른 위험은 전세계적인 Stagflation임
- 유럽의 회복에는 내적 경제 재조정, 은행과 재정연합과 같은 제도적 개혁, 정부에 대한 ECB의 안전망이 필요함
  - 다행히도 이 조건들이 진행 중임

○ 유럽위기는 CRIC순환을 나타내고 계속 나타남

- C : Crisis(위기)
- R : Response(정부의 대응)
- I : Improvement(상황의 개선)
- C : Complacency(시장의 안도)
- 작년 여름 Crisis였으며, ECB의 LTRO 정책으로 Response 올해 1분기 Improvement 국면에서 현재는 Complacency 국면인데 단기물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며 Crisis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상

□ Global GDP 성장 : 평탄하지 않고 평균이하의 약한 성장

○ GDP 성장은 하락으로 방향을 수정

구 분	2011	2012E	2013E
Global	3.9%	3.1%	3.2%
US	1.8%	2.1%	1.4%
EM(개도국)	6.5%	4.9%	5.4%

○ 장애요인 1

- 부채감소 : 미국 소비자, 유럽은행, 유럽정부의 Deleveraging이 GDP성장의 장애요인

○ 장애요인 2

- 오랜 개도국의 성장모델 붕괴

구 분	구 모델	신 모델
China	수출/투자 주도	소비주도
India	소비주도	투자주도
Brazil/Russia	자원주도	균형생산형

○ 장애요인 3 : 미국,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 상존

## □ 중앙은행들의 장애극복 노력

- 대규모 통화공급 정책 1차, 2차 시행
  - 전세계적인 과부채 상태
  - 대다수 선진국이 재정유지능력 이슈에 직면
  - 과거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에도 장기이율을 장기간 낮게 유지하였음(1940~1951)
  -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를 모두 초과
    - Stagflation 우려

## □ 국가별 차이 심화

-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GDP는 금융위기 이전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PIIGS와 나머지 국가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적 재조정이 진행 중이며 주변국은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미 양호한 제품 수출을 보이고 있음
- 구조적 개혁은 결국 장기적 성장을 촉발할 것임

## □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 유럽의 deleveraging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 □ 선거 후 미국에 대한 전망

- 선거에서 패한 롬니 진영의 전직 미네소타주지사인 Tim Pawlenty의 전망

- 하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향후 6개월동안 부시 감세 종료, 민주당 추진의 세율인상안 등 많은 정책변화의 이슈가 생길 것이며, 민주당이 자신의 주장대로 쉽게 정책을 펴긴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함에 따라 재정절벽이슈가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재정절벽 관련 이자율 전망

- 재정절벽과 관련하여 정부예산은 '13. 3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예산이 있기 때문에 합의는 '13. 2월말에서 3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 모건스탠리의 국채이자율 전망은 '13. 2월말~3월초까지 반등 후 완만한 하향세를 예상
- '11. 8월과 같은 신용등급 하향이슈 발생할 가능성 있음

#### □ Commodities 전망

- Crude Oil과 일부 농산물은 긍정적으로 전망
  - 모건스탠리의 Crude Oil 전망은 '12년 110불, '13년 115불
  - 농산물은 옥수수, 대두, 면화에 대해 긍정적 전망